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삼 잇디 말고 배우고야 마로리이다 <제1수>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부모(父母) 곧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랏다
이 덕(德)을 갓흐려 하니 하늘 가이 업스샏다 <제2수>

종과 주인과를 뉘라셔 삼기신고
별과 개미가 이 뜻을 묻져 아니
한 마암애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옵사이다 <제3수>

지아비 발 갈라 간 데 밥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
진실로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4수>

형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먹나이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제5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불공(不恭)하면 어디가 다를고
나이가 많으시거든 하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 주세붕, 「오륜가」 -

(나)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댔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원**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공공**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 이곡, 「차마설」 -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 ② 상반된 세계관이 대구의 형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③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담고 있다.
- ④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이상향에 대한 의식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진술하고 있다.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관념적 덕목을 열거하여 각각이 지닌 모순을 밝히고 있다.
- ② (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옹호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는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 ④ (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형상화하여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경이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교훈적 내용의 시조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 전략이 있다. 우선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비유나 상징, 유추, 다른 인물이나 사물과의 대비 등을 통해 화자가 개인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 ① <제3수>에서는 '벌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윤리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 ② <제4수>에서는 화자로 내세운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을 통해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③ <제5수>에서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④ <제5수>의 '개돼지'는 <제1수>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와 대비되고 있다.
- ⑤ <제6수>에서 '부모'와 '형'은, <제2수>의 '부모'와 <제5수>의 '형님'과는 달리, '늙은이'와 '어른'에 빗대어져 쓰임으로써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노둔하고 야원 말'을 빌리는 경우 '전전궁궁'하다가 위협에 처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 ② '나'는 '준마'를 빌려 탈 때의 '의기양양'한 감정이 그것을 소유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을 '미혹'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임금'의 모습을 '독부'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나'는 '맹자'의 '이 말'에서,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삼 잇디 말고 배우고야 마로리이다
〈제1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화자는 사람마다 이 말삼을 들어야 한다며 이 말삼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삼을 잊지 말고 배우야 한다며 말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할 것이니, 말삼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읽어봅시다.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부모(父母)곤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랏다
이 덕(德)을 갓흐려 하니 하늘 가이 업스랏다
〈제2수〉

종과 주인과를 닐라셔 삼기신고
별과 개미가 이 뜻을 묻져 아니
한 마암애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옵사이다
〈제3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화자는 먼저 부모님에 대한 덕에 대한 말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길러주었기에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내 몸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덕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화자는 종과 주인 간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과 신하, 즉 군신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과 개미도 이 뜻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마암애 두 뜻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 즉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충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아비 받 갈라 간 데 밥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
진실로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4수〉

형님 자신 젖을 내 조처 먹나이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제5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불공(不恭)하면 어디가 다르고
나이가 많으시거든 하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 주세붕, 「오륜가」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이번에는 지아비(남편)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밭을 갈러 갈 때 반상을 바쳐야 한다며 남편이 일을 하러 가는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하고, 이러한 것이 손님을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과 아우는 어머니의 사랑을 같이 받는 존재이기에 형제에 불화가 있으면 개돼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형제의 우애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기에 대우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인과 어른에게 공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화자는 여러 가지의 덕목을 말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덕목이 무엇인가만 파악한다면 어렵지 않은 지문입니다. 굳이 정의하자면 이 덕목들은 유교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탔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공공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쫄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글쓴이는 가난해 말이 없어 간혹 말을 빌려 탑니다.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려 탈 때는 조심히 타지만, 잘 달리는 말을 타면 의기양양해 채찍질도 하고, 유쾌하게 질주합니다. 그러다가 낙마도 하기도 합니다. 말의 건강에 따라 말을 대하는 글쓴이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

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글쓴이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글쓴이는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지냐고 하고 있습니다. 야윈 말을 타면 조심하지만, 잘 달리는 말을 타면 의기양양해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글쓴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물건을 빌려 쓸 때도 이런데, 진짜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은 더 말해 무엇 하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 이곡, 「차마설」 -

✓ 필수적 독해 태도

③ 글쓴이의 정서·태도 파악하기

그러면서 글쓴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린 것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렸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렸다고 합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은 주인에게서 빌리는 것이 많은데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맹자의 말을 인용해 빌린 것을 반환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자기 소유가 아님을 알 수 있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빌린 것이고, 빌린 사람은 그것이 자기 소유인 줄 알고 돌려주지 않으니 빌린 것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한 말을 하고 싶어 「차마설」을 지었다고 합니다.

#작품 총평

세상의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를 잘 파악했으면 됩니다.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 (가)는 ‘어와’ 같은 영탄적 표현이, (나)는 ‘아, 사람의 ~ 있단 말인가’ 와 같은 영탄적 표현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지는 않습니다. 두 작품 모두 대상 속성 예찬과는 거리가 있는 작품입니다.

② 상반된 세계관이 대구의 형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가)에서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나)에서는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 다’에서 대구의 형식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상반된 세계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계관이 상반된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③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담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가)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이 된다고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④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가)에서 다섯 가지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말씀을 들어라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나)에서는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삶의 태도를 말하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삶의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⑤ 이상향에 대한 의식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진술하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이상향에 대한 의식을 나타내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③

① (가)는 관념적 덕목을 열거하여 각각이 지닌 모순을 밝히고 있다.

→ (가)에서 열거된 덕목은 유교적인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념적 덕목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관념적 덕목에 대한 내용을 열거한 것이지 덕목 자체를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닌 모순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② (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옹호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가)는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해 말하는 작품이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옹호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③ (나)는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 (나)는 글쓴이가 말을 빌려 탄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좋은 말을 빌린 것만으로도 감정이 의기양양해졌는데, 자신이 가진 것이면 더할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했기에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형상화하여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경이감을 표출하고 있다.

→ (나)는 글쓴이의 내면 심리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경이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 두 작품 모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해 인간적 삶의 긍지를 드러내는 작품이 아닙니다. (가)에서 개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②

— <보 기> —

교훈적 내용의 시조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 전략이 있다. 우선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비유나 상징, 유추, 다른 인물이나 사물과의 대비 등을 통해 화자가 개인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보기>의 내용을 보면 교훈적 시조의 특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윤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품 속에서 이러한 윤리적 덕목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① <제3수>에서는 '벌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윤리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 <제3수>에서 '벌과 개미'도 군신 관계를 알고 있다면서 인간도 이 뜻을 알아야 하고 한 마음에 두 뜻을 가지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벌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윤리적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제4수>에서는 화자로 내세운 '시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을 통해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 <제4수>는 '시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이 아닙니다. 바로 틀린 선지네요.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 부분은 옳으나, 문답 방식은 전혀 아닙니다.

③ <제5수>에서 어머니의 '젓'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제5수>에서는 형제의 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젓'은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는 소재입니다. '형님'과 '아우'가 어머니의 사랑을 토대로 대화를 나누며 형제가 불화하면 개돼지라고 하며 형제의 우애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④ <제5수>의 '개돼지'는 <제1수>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와 대비되고 있다.

→ <제5수>에서 형제가 불화하면 '개돼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수>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의 의미와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덕목을 지키지 않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와 대비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⑤ <제6수>에서 '부모'와 '형'은, <제2수>의 '부모'와 <제5수>의 '형님'과는 달리, '늙은이'와 '어른'에 빗대어져 쓰임으로써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제2수>의 '부모'와 <제5수>의 '형님'은 실제 가족 구성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수>에서 '부모'와 '형'은 '늙은이'와 '어른'에 빗대어 쓰인 존재입니다. '늙은이'와 '어른'도 공경해야 함을 말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①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리는 경우 '전전공공'하다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릴 때는 이 말이 금방이라도 쓰러질까봐 '전전공공'하기 일쑤입니다. 또 개천이나 도랑을 만나면 말에서 내리곤 합니다. 그만큼 조심히 말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② '나'는 '준마'를 빌려 탈 때의 '의기양양'한 감정이 그것을 소유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나'는 '준마'를 빌려 탈 때는 '의기양양'해져 채찍질도 하고 유쾌하게 질주하곤 합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남의 물건을 빌려서 쓸 때도 이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경우는 더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유할 때는 발생하지 않

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을 '미혹'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아보지 않는다며 이것이 '미혹'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미혹'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 '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임금'의 모습을 '독부'로 표현하고 있다.

→ '나'는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임금'도 '독부'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임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⑤ '나'는 '맹자의 '이 말'에서,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 '나'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다 빌린 것인데, 이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며 이를 말하기 위해 「차마설」을 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